

소말리아 월간 동향 (2019년 6월)

1 정치

가. 갈무дук(Galmudug) 주정부 선거 동향

- '19.7월 주정부 대표 선거 실시 계획 발표에 따라 親연방정부 지도자 선출 가능성 다대(6.24.)
 - 갈무дук 주 대표 선거와 관련 그동안 하프(Ahmed Dualle Geelle 'Haaf') 주정부 대표와 연방정부 간 선거 일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19.6.24. 하프 대표는 연방정부의 추진안을 따라 '19.7월 중 선거 실시 계획 발표
 - 그동안 양측은 하프 대표의 임기 완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바, 연방정부는 하프 대표가 2015년 당선되어 2017년 물러난 굴레드 (Abdikarim Hussein Guled) 前대표의 대표직을 물려받음에 따라 하프 대표의 임기가 2019년 완료된다고 주장하며 '19.7월 선거를 추진해온 반면, 하프 대표 측은 2017년 취임 후 4년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선거를 주장하며 갈등 발생
 - '17.5월 하프 대표는 선출 직후, 지역 내 온건주의 이슬람 그룹인 아흘루 수나(Ahlu Sunnah Wal-Jama'ah) 지도자 샤키르(Shiekh Mohamed Shakir)를 내각 최고위직으로 임명하는 등 권력 공유를 통해 갈무дук 주의 연합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샤키르와 2021년까지 임기를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측이 하프 대표가 아흘루 수나와의 연합을 통해 세력을 강화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반대하는 타 부족 외 주요인사(부대표, 국회의장)들을 포섭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최근 아흘루 수나와도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금년 7월 선거를 추진해 온 것으로 주장
 - ※ 아흘루 수나는 갈무дук 지역의 알샤랍을 격퇴하며 동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하프 대표가 연방정부 측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親연방정부 인사의 출마 및 당선 가능성 다대

2 대외관계

가. 소말리아-국제연합(UN) 관계 동향

○ 스완(James Swan), UN 소말리아 특별대표 겸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UNOSOM) 대표 방문(6.25.)

- 스완 대표는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과 소말리아 현안을 논의하고 유엔과 소말리아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지지 메시지 전달

나. 소말리아-아프리카연합(AU) 관계 동향

○ 소말리아 연방정부 국회의장-AU소말리아임무단(AMISOM) 특사, 협력 논의 (6.9.)

- 무르살(Mohamed Mursal) 국회의장은 AMISOM 마데이라(Francisco Madeira) 특사와 회동을 통해 AMISOM과 소말리아정규군 간 합동작전을 포함한 향후 협력 논의

다. 고위급 인사 해외 순방 동향

○ 소말리아 총리, 카타르 방문(6.1.)

- 카이레(Hassan Ali Khaire) 총리는 알타니(Sheikh Moha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카타르 정부는 소말리아 내 도로건설을 위한 2억 미불 지원 합의

○ 파르마조 대통령, 에티오피아 방문(6.2.)

- 파르마조 대통령은 아흐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 외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평화와 안보 논의

○ 아와드(Ahmed Isse Awad) 외교장관, 중국 방문(6.25.)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참석 계기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과 양국 관계 논의
- 왕이 외교장관은 소말리아가 안정을 회복하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농업, 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UN과 A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소말리아가 주권과 독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 촉구
- 아와드 외교장관은 국가재건 및 평화구축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의 BRI(Belt&Road Initiative)를 포함한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

○ 유럽연합(EU) 관계 동향(6.13.)

- 마르티네즈(Nicolas Berlanga Martinez) 소말리아 주재 EU 대사, 4,200만 유로에 달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 지원 서명

○ 영국 대표단 방문(6.21.)

- 무어(Richard Moore) 외무부 정책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방문하여 AMISOM에 대한 지원 외 안보 문제, 경제문제(고용창출) 등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논의

○ 노르웨이 외교장관 방문(6.10.)

- 소레이드(Ine Eriksen Soreide) 외교장관은 양국 외교 관계 복원 이후 소말리아를 처음 방문하였으며 굴레드(Mahdi Mohamed Guled) 연방정부 부총리와 향후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3 안보

가. UN, 알샤밥의 케냐와 소말리아에 대한 동시 테러 규탄(6.17.)

○ UN, '19.6.16. 모가디슈와 케냐 북동부 와지르(Wajir)에서 발생한 공격 규탄 성명 발표

- 알샤밥, '19.6.16. 모가디슈 대통령궁 인근에서 차량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을 실시하여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와지르에서도 즉석폭발물 공격으로 8명의 경찰병력 사망
-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소말리아와 케냐에서 발생한 동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였으며, 양국과 협력하고 연대를 통해 테러와 폭력 사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

나. 미국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알샤밥 공습 동향

○ 아프리콤, '19.6월 알샤밥과 Islamic State 대상 총 6회 공습 실시

4 경제

가. 폰트랜드(Puntland), 항구 개발 동향(6.1.)

- **푼트랜드 정부, 중국토목공사그룹(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과 Eyl 지역 항구 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 Eyl 지역은 소말리아 내 가장 빈곤률이 낮은 도시로, 1,6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의 중심지로 CCECC는 지난 3년간 푼트랜드 주정부와 항구 건설 관련 투자 및 자금지원 등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동 프로젝트 체결로 항구 건설 외 수산물 수출 확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 기대. 끝.